

전남도, 마한역사문화 복원·세계화 쟁걸음

‘馬한타고 남도가자’ 주제 28일까지 마한문화행사 호남 ‘대선과제 건의’ 퍼포먼스 ‘옴뜸전남티브’ 중계

전남도는 ‘마한문화권 발전과 마한역사문화 복원 및 세계화’를 광주시, 전북도와 함께 광역 대선과제로 건의하기 위해 국립나주박물관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馬한타고 남도가자’를 주제로 열리는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는 26일부터 31일간 국립나주박물관과 영산포 등 도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행사 첫날인 26일 사전행사인 ‘마한 영산강 뱃길 재현 및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개막 공식행사인 ‘대선과제 공동건의의 퍼포먼스’를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옴뜸전남티브’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마한 영산강 뱃길 재현 및 정상회담’에선 고대해상왕국 마한의 찬란했던 영산강 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마한 영산강 길 자전거 대행진을 한다. 또한 전남도와

곡성, 고흥, 진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고대 영산강 뱃길 재현, 마한 발전 비전 발표 및 대선과제 협의의 일환 마한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리는 개막행사는 대선과제 채택을 기원하는 마한문화행렬단, 도립국악단 마한 기획공연, 마한기예무단 공연 등 마한문화 발전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개막행사의 핵심인 ‘대선과제 공동건의의 퍼포먼스’에서는 마한역사문화 복원·세계화를 위해 전남, 광주, 전북 3개 시도와 참석자 전체가 함께 대선과제 건의 디지털 서명식을 진행한다.

공동건의 서명식은 마한사 복원을 위

한 3개 시·도 초광역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

행사 기간 (재)한국국학진흥원에서 마한사 복원 과제로 기획한 웹툰 ‘고대해상왕국 마한의 바닷길 이야기’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재현한 영산강 유역의 대형 옹관을 국립나주박물관에 전시한다.

27-28일엔 도내 일원에서 마한문화유산과 관광, 자연생태 등을 접목한 ‘마한역사 유적답사’를 하고 나주 반남 고분군 일원에서 도내 청소년이 마한유적 유물 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마한 상상미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반남 고분군(국가사적 제513호)에 위치한 덕산리 3호분 발굴 현장을 일반인에게 최초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전남 14개 시·군, 광주시, 전북도 마한역사문화 홍보관을 운영하고 방문객을 위한 마한역사홍보관 인증샷 이벤트도 열린다.

국립나주박물관에선 특별전 ‘금은보다 귀한 옥’을 오는 30일부터 2022년 2월 6일까지 개최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돼 마한사를 복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 행사는 마한사 복원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전북이 초광역 협력으로 마한사 복원 정비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며 “마한역사 문화권의 복원·세계화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토록 해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역사문화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그동안 마한사 복원을 위해 현 정부의 대통령 지역 공약 확정 후 도 차원의 기본계획을 2017년 수립하고 2018년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0년 11월 마한문화 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에서 수립 중인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경기자

“수도권 집중현상, 지역 불균형 풀지 못한 숙제”

문 대통령 시정연설... “불공정·차별·배제 사회통합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강한 블랙홀인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 발전을 언급하면서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한다”며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된다.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회복에 대해서는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고용에서도 지난해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며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바뀌고 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을 해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예산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예산 등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탄소중립 달성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 과제이자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고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예년 시정연설보다 비중을 줄여 “대화과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만 언급했다.

/김진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섬여행 상품’ TV홈쇼핑서 판매

일상 회복 대비 신안·홍도·흑산도 첫 방송

전남도는 25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 관광업계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남장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TV홈쇼핑에 전남 섬여행 관광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방송은 신안 홍도와 흑산도, 목포를 여행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GS홈쇼핑을 통해 ‘천혜의 신비를 간직한 섬, 홍도·흑산도 1박2일/2박3일’ 상품을 지난 22일 생방송으로 판매했다.

앞으로 온라인 GS홈쇼핑 쇼핑몰(www.gsshop.com)과 모바일 앱을 통해 12월 말까지 섬여행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홍도·흑산도 섬여행 상품은 쾌속선을 타고 아름다운 섬과 바다의 비경, 특별한 어촌밥상을 체험하는 등 일상에서 맛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담아 1박2일 18만5천원, 2박3일 26만5천원으로 구성됐다.

실제 2박3일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1일 차에는 쾌속선을 즐기며 홍도에 도착해 힐링 걷기를 통해 홍도의 정취와 몸뚱이 수유장, 난전시관, 동백순군락지 등 관광지를 관람한다.

2일 차에는 홍도 일주 유람선을 타고 홍도 33경 중 제일 아름다운 10경을 감상하며 특별한 이벤트로 현지 해역에서 갓 잡은 자연산 활어를 바다 위 횡배에서 구매해 맛볼 수 있다.

3일 차에는 바다 위를 나는 아찔한 목포해상케이블카 체험과 해상물이 가득한 전통시장인 목포동부시장 투어를 통해 목포의 멋과 맛을 한껏 누릴 수 있다.

/김재경기자

‘전라선 고속화’ 사전타당성조사 연내 착수

‘전라선 고속화’(여수-익산) 등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올해 안에 착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8개 사업은 전라선 고속화를 비롯해 광주-대구,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동해선, 전주김천선, 대구산단산업선, 원주연결선 등이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전라선이 경

부·호남고속선에 비해 현저히 속도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3조357억원을 투입, 여수-익산 간 속도 200km/h 이상의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은 “호남민들의 염원인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고 연간 1천300만명 이상이 여수를 찾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면제도 촉구했다. 호남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고,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으로 분류해 예타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임후성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리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시리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립니다.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시오른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구인광고

캠코더, 카메라 남·여 수리기사 모집

- 평일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4대보험 적용
- 급여 : 면접 후 결정
- 나이 제한 없음

광주 소니 서비스 센터
062) 522-2000